

2006 9 월 호 제378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9월호

발행일 : 2006. 9.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해럴드미디어
대표 홍정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6
통권 제378호 9

생각해봅시다	4	'콘트라섹슈얼'은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박영배
실태조사	6	근로자모성보호제도의 인지도 및 사용
	8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소비자지식	11	한·미FTA 협정, 찬반양론은 이렇다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정보	14	자동차 정비업소, 이렇게 선택하자
소비자경보	16	상품권 피해, 미리 예방하자
알아봅시다	18	'트랜스지방', 왜 '나쁜 지방'인가?
소비자뉴스	20	국립공원 입장료 내년부터 무료
식품뉴스	22	과자·음료수 내년 12월부터 콜레스테롤 표시 의무화
여성뉴스	24	여성가족부, 제2차 현행법 남녀차별 조항 181개 발표
에세이	26	"산티아고 데 까미노(야곱의 길)" 4천5백리/이난호
금융정보	28	은행수수료,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건강정보	30	골다공증, 예방이 최선이다
환경정보	32	집안을 '목재 향기'로 채우자
가정요리	34	전통의 깊은 맛, 한가위 다과
일뜰정보	36	전자제품, 알뜰 구입 노하우
여행	37	가을 향기 가득한 곳으로!
수상소감	38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문학산책	40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41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시판	50	'제13회 주부대학동문회 운동회' 개최 및 주부대학원 수강생 모집

〈표지사진 :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중앙회, 06. 9. 8), 가족과 함께하는 소비자캠프(부산광역시지부, 06. 8. 11)〉



‘콘트라섹슈얼’은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

박 영 배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혼기에 이른 여성이라 할지라도 “시집 가서 시부모 잘 모시고 아이 낳고 살림 잘하라”고 하면 십 중 팔구는 화를 낼 것이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은 별로 없는 게 요즘 여성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훨씬 강하다.

이렇듯 자신들의 삶을 중시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여성들을 일컬어 콘트라섹슈얼(contra sexual)이라 부른다. 반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콘트라와 성(性)이란 의미의 섹슈얼을 조합한 신조어다. 과거의 전통적인 성에 대한 인식, 즉 여성은 ‘이래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stereotype)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들은 결혼이나 육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일과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선택 일을 우선으로 꼽는 사람들이다.

영국에서는 무려 80%의 여성이 결혼보다 직업을 우선시할 정도라고 하니 콘트라

섹슈얼은 이미 대세로 자리매김 된 듯하다.

우리의 사정도 2000년대 초의 영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 미혼 및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몇몇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신을 콘트라섹슈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통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커다란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여자로 치부하는 남성위주의 사회이기에 더욱 그렇다. 결혼이나 육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일과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선택 일을 꼽는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는 서구 어느 나라 못지않았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이혼이나 재혼은 자유스러웠다. 자산분배도 출가외인이다 해서 차별이 없었다. 조선 후기 주자학이 들어오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동안 가부장제가 정

착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괘시를 당하게 된 것이다. 위아래 가족이나 채기고 허드렛일을 하는 여성편하의 역사가 4백년 동안이나 지속된 셈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법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시집을 가면 ‘호적을 파 간다’는 얘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풍(女風)의 위세가 남성들을 쥐죽게 만들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각종 국가시험에서, 다양한 스포츠종목에서 뛰어난 실력과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어느 영역에서든 미혼·기혼의 구분도 없어졌다. 중장비를 운전하는 처녀가 있는가 하면 우주 여행에 도전하는 어머니들의 씩씩한 모습도 눈에 띈다.

여성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에 부딪치고, 고정관념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일들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다.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못하고 성의 역할을 따지는 사람들은 구세대로 취급되기 일쑤다.

요즘에는 오히려 남성들이 아우성이다.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부드러워져야 한다며 오히려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공룡처럼 멸종할 것인가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가부장적 남성상을 부정하고 외모에 신경

을 쓰고 여성 취향의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도시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위 메트로섹슈얼(metro sexual)이다.

지금은 미래형 남성으로 ‘M-ness족’이 회자되고 있는데 힘, 명예 등 긍정적인 남성상과 따뜻함, 협력 등 긍정적인 여성상이 결합된 남성이다. 한 마디로 성(性)중립적이고 개인화한 남성이다.

여성의 콘트라섹슈얼과 남성의 메트로섹슈얼이 혼재하면서 성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본디 모습을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본래 양성(androgyne)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여성들의 영역이 신장되면서 남성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빼앗기고, 앞으로 더욱 빼앗길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해지고 있어서일 게다.

여성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우리 윗세대만 해도 부모 강권에 못 이겨 시집을 가고, 남편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고, 삼종지덕(三從之德)을 맹목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했던 이 땅의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좌절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자유분방한 콘트라섹슈얼로 변했다.

진정 이들에게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 아직도 여성들에게 교묘하게 단혀져 있는 조직과 사회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 ■

출산·육아 휴직제 실제 사용률 저조 ‘모성보호법’ 홍보 강화해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지부에서는 여성보호법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충남도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모성보호제도의 인지도 및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7월 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실태조사 내용 중 출산 육아·휴직제를 중심으로 근로 여성들의 인지도 및 그 사용 실태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출산 전후 휴가제

응답자 45% ‘대체인력 부족과 상사·동료들의 눈치 등의 이유로 출산 휴가 사용 자유롭지 못하다’

출산 휴가 확대 등 개정된 ‘모성보호법’의 주요 조항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법이 개정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다’는 35%, ‘모르고 있었다’가 21%로 조사되어 정부의 ‘모성보호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휴가를 이용해 본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 54%가 60일~90일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60일 이하가 37%, 91~120일이 8%, 120일 이상은 1%로 나타났다.

반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45% 응답자가 ‘자유롭지 못하

다’고 생각했다. ‘보통이다’가 28%,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 26%,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에 19% 순으로 답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문제’ (28%)와 ‘상사·동료들의 눈치 때문’ (22%)이란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저하’ 19%, ‘복귀시 업무적응 문제’ 17%,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14% 항목 순이었다.

이러한 출산휴가 사용률 저조의 문제점은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기업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아 휴직제

응답자 79% ‘원직복직에 대한 불안함과 지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육아 휴직 사용하지 못했다’

출산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불가능하다’, ‘모르겠다’ 25%로 답하고, ‘가능하다’는 응답자가 31에 불과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았는가에 대해선 응답자 79%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해 육아휴직제 실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35%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라고 답했고, ‘지원 금액이 적어서’ 23%, ‘상사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20%,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8% 순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육아 휴직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육아 휴직 사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형성’ 28%, ‘원직복직 보장’ 22%, ‘육아휴직급여 인상’ 16%, ‘대체인력 확보’ 12%,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정상 근무와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 각각 9% 순으로 답했다.

끝으로 ‘아버지 육아 휴직제’ 도입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 중 누가 신청을 해도 상관없다’가 43%, ‘부모가 교대로 신청하는 방안 마련’ 28%, ‘부모가 동시에 휴가 갖게 하자’에 16%가 응답했다.

반면, ‘아버지의 육아 휴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해 남성들의 육아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및 제언

‘모성보호법’ 실효성 거두려면 기업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감독 및 지원 강화해야

최근 또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입법화 추진은 모성보호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 결과, 모성보호의 대상인 여성 근로자 60%가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관련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구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시행 감독 소홀의 문제점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 여성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21%의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은 2%에 그쳤다고 한다. 이렇듯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출산 및 육아 휴직의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회사 내 분위기’와 ‘사회적 인식 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를 위한 임금 부담 등을 ‘지출’이 아닌 출산과업을 막아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고, 정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 스스로 활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폐가전제품 처리과정 불만 많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인지도는 낮아

자원 부족과 함께 지구 환경의 황폐화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재활용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지부는 지난 7월 1일~8일까지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의 배출 및 재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뿐 아니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다.

● 가전제품 폐기물 배출 현황 ●

■ 최근 배출한 가전제품 폐기물의 종류는?

전기소모품(32%)이 가장 많아

최근 1~2년 사이에 각 가정에서 배출한 가전제품 폐기물 중 전기소모품류(폐형광등, 폐전전지류)가 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컴퓨터류(14.5%), 밥솥류(8.9%), 에어컨·선풍기류(8.1%),

가전제품종류	실수	구성비(%)
TV·비디오류	39	7.86
라디오·오디오(전축·녹음기등)류	28	5.65
밥솥(통)류	44	8.87
에어컨·선풍기류	40	8.07
컴퓨터류	72	14.52
전기소모품(형광등·건전지등)류	157	31.65

TV·비디오류(7.9%)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전제품 폐기물의 배출 이유는?

제품의 수명 다 돼서 82%

가전제품 폐기물을 배출시킨 이유는 오래 사용하여 제품의 수명이 다 돼서(82.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장으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8.4%), 기능·디자인이 보다 향상된 모델로 교체(2.9%)하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전제품 폐기물의 배출 후 처리경로는?

동사무소(25.9%)와 제조회사(22.6%)에 연락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25.9%)하거

나 제조회사에 보낸다(22.0%)로 응답했으며, 재활용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한 경우가 15.9%였다.

그러나 유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13.0%), 집안이나 집밖에 방치 중(2.1%), 기타(5.9%) 순으로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배출해 처리방법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 가전제품 배출시 불만 및 어려운 점은?

처리 과정 및 비용에 부담 느껴

제조회사의 경우, 소비자 58.8% ‘새 제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폐가전제품을 가져갔다’에 응답했고, 처리 비용을 받고 가져간 경우도 4.1%나 되었다.

제조회사측이 새 제품을 사야만 폐가전제품을 수거한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결국 소비자 동사무소에 연락해 처리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 장소까지 운반이 어렵다’ 37.6%, ‘처리 비용이 비싸다’ 32%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재활용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한 경우 역시 처리 비용에 대해 ‘비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55.7%나 되었다.

불만 사항 조사결과, 소비자 대부분이 폐가전 및 전자제품 배출시 스티커 구입이 번거롭고 배출할 곳까지의 운반이 어렵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방법은?

응답자 58.8% ‘제조업체 책임지고 수거 처리’ 원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방법은 ‘업체에서 책임지고 수거 처리’ 58.8%, ‘재활용 업체가 처리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29.6%로 답했다.

그러나 ‘현행대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 처리한다’에는 8.2% 만이 응답해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정부나 제조업체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	실수	구성비(%)
현행대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 한다	19	8.15
제조(생산)업체에서 책임지고 수거(처리)해야 한다	137	58.80
재활용업체가 처리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69	29.62
기타	8	3.43
합계	233	100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인지도

소비자 78.2% ‘모른다’고 응답

폐기물 배출과 관련해 관련 당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0 03

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 78.2%가 ‘모른다’고 답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한다’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51.1%,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해서 폐기한다’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48.87%로 거의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식여부	실수	구성비(%)
알고 있다	52	21.85
모른다	186	78.15
합계	238	100

■ 결론 및 제언

이번 조사에서 폐가전제품 중 전기소모품(건전지, 형광등)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었고, 컴퓨터류가 다음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전제품을 폐기물로 배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 82%가 ‘제품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라고 답해 비교적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경로로 동사무소와 제조회사에 연락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소비자도 15%가 넘어

배출 습관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고,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제조업체가 책임지고 처리’(58.8%)하거나 ‘회수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29.6%)고 응답한 소비자 부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활용 촉진과 환경 보호 정책으로 마련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78.2%가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인지도가 매우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제조업체의 폐제품 회수에 대한 의무 회피는 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 및 정부 모두가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그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환경 정책과 기업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깨끗한 자원 순환형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미 FTA 협정, 찬반양론은 이렇다

주요 경쟁국들이 FTA에 뛰어들고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 흐름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로서 FTA가 체결되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7일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본 협상을 가짐에 따라 다시 국내외에서 찬반 논쟁을 벌여지고 있다. 그 찬반양론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구분	반 대	찬 성
일자리 고용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우리 사회에 외환위기 사태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것이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협정은 단기적으로 부실한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교역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농업	미국산 쌀 가격이 국내산의 1/5에 불과한데도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26%에 불과하다. 피해 대책도 없이 줄속 추진되는 한·미 FTA는 우리 농업에 악영향을 준다.	한·미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밀, 대두, 사료 등 품목의 관세는 5%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영향이 별무하다. 오히려 식품안전과 유통이 불투명한 중국산이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문화산업	미국의 스크린 쿼터 축소 요구는 우리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입장을 바꿔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스크린쿼터를 도입하면 우리 영화도 그만큼 수출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무역	한·미 FTA로 한국은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가 아닌 단순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양국간 기술 협력 및 교류가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서비스 산업	한·미 FTA로 컨설팅 등 경쟁력이 높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 들어올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개방된 상태이다. 비록 미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우위로 우리의 대미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18억불)될 전망은 있다. 그러나 고용 및 교역량 확대에 의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공 서비스	한·미 FTA로 공공서비스 분야가 자유화, 시장화, 사유화 과정을 거쳐 말살된다.	교육·의료는 협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방 폭을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
안보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보다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만 초래한다.	양국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안보위주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유지 정착에 기여한다.

소비자의 소리

하자품 판매한 쇼핑몰, 박스 버렸다는 이유로 컴퓨터 대금환불 거절

내용 엄기웅(전남 목포시 북교동)씨는 2006년 8월 31일 쇼핑몰 아이코디에 컴퓨터를 주문하여 9월 5일에 인도 받았는데 컴퓨터에 윈도우 설치를 위하여 인스톨을 시도했으나 오류로 실패하였고, 9월 7일(목) A/S를 의뢰해 기사가 와서 보더니 컴퓨터 메인보드 결함으로 본체를 수거해갔다. 토요일(9일)에 컴퓨터를 돌려받았으나,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도 결함이 있었고, 컴퓨터 사용 중 수시로 재부팅이 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았다.

하드디스크 결함이란 것은 기사가 지적해주었고, 교체를 의뢰해 놓았는데 그뿐 아니라 모니터 화면에 결함까지 여러 부분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믿을 수 없는 제품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고 정신적 피해가 커 구입가 129만원 전액을 환불 요구했다.

새로 산 컴퓨터가 주요기능 4가지 결함이라면 충분한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박스를 버렸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처리 판매사의 담당 팀장과 통화, 제품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해 보상기준대로 129만원 전액을 환급처리하고 제품 회수하기로 했다.

공기 청정기 렌탈 계약 해지, 상품 반환 후 100여 만 원 이상3개월 분부당 인출

내용 변용기(전북 김제시 흥사동)씨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웅진코웨이사와 공기청정기 18대 렌탈 계약을 2005년 3월에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2006년 4월에 해지통고 했고, 제품은 6월에 회수해 갔다.

상품 반환 후에도 연락 없이 5, 6, 7월 3개월분에 해당하는 렌탈 이용 비용 총 일백 여만원 이상이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상담 의뢰 및 부당함을 고발했다.

처리 웅진코웨이 상담실에서 해당 부서에 이관 조회 후 그 동안 사용 미납액 공제한 초과입금액 74만원을 9월 11일 소비자 댁(모텔)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차량 수리비 60만원청구 관련 불만 제기

내용 정영도(경북 구미시 형곡동)씨는 2005년

도 출고된 차량 NF쏘나타를 사용 중 차량 떨림 현상으로 현대자동차 그린서비스에 방문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비공장에 의뢰하여 무상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비공장에 입고 후 차량 분해 결과, 엔진오일을 제때에 교환하지 않은 원인으로 떨림 현상으로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 소비자가 부당한 청구행위라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처리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나 소비자가 차량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 무상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린서비스로부터 차량 서비스관리를 받아 왔고, 전산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정비공장에 의뢰하여 무상 수리 해주겠다고하여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전 언급이 없었다.

사전 고지 없이 소비자가 수리하지 못한 상태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정비공장으로부터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상 수리해 주기로 합의했다.

보증수리 기간내 교체했던 엔진, 차량 검사받던 중 구형엔진으로 교체된 사실 확인

내용 장재석(대전시 서구 정림동)씨는 2002년 현대자동차 대전영업소를 통해 아반떼XD를 구입했다. 한달 정도 운전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하자가 발생하여 차량 교체를 요구하였더니 규정상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나 장치교환이기 때문에 차량교체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새 엔진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2006년 8월 차량 검사를 받던 중 2002년 엔진 교환시 신형엔진이 아닌 구형엔진으로 교체

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의 제기하니 본사와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며 연락 오지 않는다.

처리 그 당시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였고, 하자 발생정도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 가능하며, 부품 교환시 새 제품으로 교환했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와 상담결과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였다.

DVD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계약해지 요청

내용 김진희(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씨는 7월 29일 방송미디어 문화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란 곳에서 DVD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전화로 주문, 현금으로 78만원에 구입하였다.

TV문화관에 나온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 같아 구입했는데 DVD테이프는 비닐포장이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았고, 비디오테이프는 비닐포장이 되어 있었다.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개봉, 재생시켜 보니 화질이 안 좋고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다고 로 생각되어 8월 1일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비디오테이프만 반납하라고 한다. DVD 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모두 반납하고 싶다.

처리 DVD테이프가 처음부터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했다는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반품처리를 요청했고, 비닐포장을 개봉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만 손료를 제하고 환불해 주기로 요청하여 손료 5만원을 공제한 73만원 환불처리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자동차 정비업소, 이렇게 선택하자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갈 때 또는 다 고치고 난 다음에도 왠지 못 미덥고 찝찝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운전자들에게 정비업소 선택은 여간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내놓은 현명한 정비업소 선택요령을 소개한다.

1 주인이 직접 하는 곳을 이용한다

주인이 직접 정비를 하고, 한 장소에서 오래 하고 손님이 복적되는 정비업소를 선택한다. 왠지 한산하고 썰렁한 업소를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가하다.

2 보증기간을 100% 활용한다

보증기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비용절약 방법이다. 차체 및 일반 부품은 2년/4만km,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은 3년/6만km에서 점차적으로 주요 부품의 내구성이 좋아짐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추세이다.

3 정비 전 견적서는 미리 받는다

정비를 받고 나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금

물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다.

견적서의 내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정비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타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4 정비업소도 분야별 전문점이 있다

최근 정비업소도 전문점이 각광을 받고 있다. LPG정비, 타이어·자동변속기·엔진종합진단·신차전문·고령차전문 정비업소 등 각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전문 정비업소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실속 정비를 받을 수 있다.

5 단골을 활용한다

엔진오일이나 자동변속오일 등 단일 정비를

할 경우에는 단골정비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나 장거리 주행이나 타지에서 긴급한 고장이 나 견인할 경우에는 타 견적을 한 군데 더 받아보거나 단골 정비업소에 전화를 해 보는 등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6 정비 후 30~90일의 A/S기간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한 경우에는 점검·정비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정비 후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지 않아 과잉 정비나 부실 정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비내역서를 잘 보관해야 일정 기간 차량과 주행 거리에 따라 30~90일간 무상 보증수리가 가능하다.

7 정비·점검내역서를 보관한다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했을 경우 점검·정비내역서를 정비업자로부터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한다. 추후 과잉·부실 정비가 발생할 경우 정비내역서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정비 불만의 대부분이 과잉 정비라고 볼 때 소비자는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보관해둔다.

8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피한다

유난히 싼 가격을 내세우는 정비업소는 주의해야 한다. 미끼 상품을 내세워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미끼 품목 이외에는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의 경우 싼 정비료에 현혹돼 오히려 '봉'이 되는 경우가 많다.

9 '무늬만 국산'에 주의, 부품의 원산지 확인한다

포장만 국산품인 저질 중국산 부품이 판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정품의 경우 타이밍벨트는 약 8만km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산 타이밍벨트는 4만km도 못쓰고 끊어진다.

국내에는 중국산 부품(타이밍벨트·휠터·전조등·플러그·연료펌프)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정비업소에서 원산지를 속인 경우에는 정비업소를 상대로 피해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내역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적도록 한다.

10 정비 전에서 관련 정보를 구한다

정비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상품권 피해, 미리 예방하자

상품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경품용 상품권 문제가 대두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가 우려되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그 피해 예방 요령이다.

상품권 구매시 주의사항

● 가맹점, 발행업체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다.

특히 발행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발행업체의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인터넷 할인 판매 주의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추석,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유사한 피해가 다발하며, 최근에는 경품용 상품권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가 오랫동안 영업해 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우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유효기간, 발행일자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 물품·용역 상품권은 금액도 함께 표시

물품·용역 상품권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 물품명만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물품 가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명과 함께 금액을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 50만원 상당의 양복 1벌)

상품권 사용시 주의사항

● 상품권 사용 후 잔액 처리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하면,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가맹점에서 사용을 거절할 때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가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때에는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현금상환을 거절하면 발행자로부터 상환거절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업체 부도, 연락두절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발행업체의 부도 발생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상품권 유통업자, 게임업소, 가맹점 제외).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딱지상품권'(미지정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 경품용 상품권(18종)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양복상품권, 여행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발행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발행업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트랜스지방, 왜 ‘나쁜 지방’ 인가?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불포화지방이지만 포화지방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유해성 때문에 내년 12월부터는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트랜스지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트랜스지방’이란?

마가린 및 쇼트닝 등 가공유지나 이들 성분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및 반추동물(反芻動物)의 지방 중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의 하나로서, 액체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 하기위해 수소 첨가하는 과정 중 또는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으로 처리할 때 생성되기도 하고, 소 등 반추동물의 고기나 지방 중에도 자연발생적으로 소량 생성되기도 한다.

■ ‘트랜스지방’을 왜 사용하는가?

가격 저렴하고, 특유의 ‘고소한 맛’ 인기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선 대개 액체 상태라 상하기 쉽고 저장하거나 운반하기 어려

워 수소를 첨가해 고체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식품업체는 ‘경화유’라고 불리는 트랜스지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 무엇보다 음식을 바삭바삭하게 보기 좋게 만들고,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어 가공식품제조에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다.

■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식품은?

인스턴트 식품에 많아

마가린, 쇼트닝, 라면, 과자, 도넛, 프렌치 프라이 등에 들어있다. 양념 중에서는 마요네즈가 들어가 소스에 많고 튀김이나 어육제품, 유제품에도 들어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용 즉석밥, 냉동 피자, 모카 케이크 등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트랜스지방’은 왜 나쁜가?

혈관건강 악화시켜

트랜스지방 특유의 고소한 맛에 빠져들다 보면 우리의 몸은 트랜스지방산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식물성 불포화지방인 트랜스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많은 포화지방처럼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LDH)수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포화지방보다 건강에 더 나쁜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심장질환 최대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알레르기나 면역력 저하, 암, 당뇨 등을 유발한다는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규명된 바는 없다.

■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기 방법은?

- ① 튀김을 할 때에는 쇼트닝보다는 액상의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토스트, 볶음밥 등 조리시 마아가린 사용을 줄인다.
- ③ 원재료명에 쇼트닝, 마아가린, 정제가공유지 등 경화유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가급적 섭취를 줄인다.
- ④ 하루에 먹는 지방과 기름의 총량을 5 찻숟가락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다.

■ ‘좋은 지방’은 무엇인가?

불포화지방 적당히 섭취해야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주로 먹느냐에 달려 있다. 혈관 건강에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되도록 덜 먹고, ‘좋은 지방’인 불포화지방은 적당량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에 많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코코넛유, 야자유 등에 많다.

반면,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계열의 불포화지방산과 올리브유 같은 단일불포화지방산이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등어, 삼치, 꽂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주일에 2~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올리브유, 캐놀라유, 콩기름, 참기름 등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물성 지방은 혈관 건강에 유익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다. 식물성 지방에도 포화지방이 일정량 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 어떤 기름이든 보관할 때 산화를 막기 위해 냉장보관을 하고, 한 번 개봉한 제품은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개봉한 지 3개월이 넘은 기름이라면 과감히 버리도록 한다. <내용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공원 입장료 내년부터 무료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국립공원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과 환경부는 입장료 폐지를,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유지 방침을 고수해 혼선을 빚어왔었다.

기획처는 “국립공원의 연간 예산 1300원 가운데 30%에도 못 미치는 250억~280억원의 입장료를 없앨 경우 입장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만큼 정부가 해야 할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며 반대했었고, 다만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열차표 싸게 사는 방법’ 공개, 모르면 손해

한국철도공사 대구지사는 ‘편리한 기차 이용방법과 기차표 싸게 사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먼저 동반석을 이용하면 37.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열차 각 칸마다 두개씩 마련된 마주보는 좌석에 한해 4명의 동반석을 1장으로 묶어 사는 방법이다. 3명이 이용하고 좌석 1개를 비워도 각자 1명씩 열차표를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다. 불편을 조금 감수할 수 있다면 역방향이나 출입문 인접 좌석, 자유석을 살 경우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찍 예매할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평일 운행하는 열차는 1~2개월 전 예매할 경우 20%, 15~29일 전 예매하는 승객은 15%, 7~14일 전 예매자는 7%의 할인된 값에 표를 살 수 있다.

회원카드, 패밀리카드를 이용하면 기본 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운임요금의 3%가 적립된다. 청소년카드(24세 미만), 동반카드(9명까지), 비즈니스카드(24세 이상), 경로카드(65세 이상) 등 각종 할인카드를 구입할 경우 최고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환승할 때도 환승 승차권을 구입하면 더 싸진다. 정해진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은 정기

권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1개월 정기권의 경우 50% 할인된다.

인터넷·무인발급기로 가구원 주민초본 발급

오는 25일부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가구원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본인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25일에 맞춰 인터넷과 무인민원기를 통해 발급 신청인 본인 신원이 확인되면 다른 가구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내년부터 노인 60%에 월 7만~10만원 지급

‘국민연금개혁’ 방안 확정에 따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가 오는 2007년 7월부터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일정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

로 인정해주는 ‘군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289만명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층 중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일반계층은 월 7만원을 지원받는다.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2~3% 인상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3% 가량 오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화재와 그린화재는 내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적으로 각각 2%, 1.7% 인상할 계획이며 다른 손해보험사도 2~3% 가량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약 갱신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4월에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4~5% 올리고 일부 회사는 이달부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또 전체 보험료를 올릴 경우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연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새 직장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이직한 곳에서 퇴직할 때 과세된다.

현재 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를 둘러싼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펴내고, 근로자가 퇴직소

득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렸다.

씻기루 이어 대장균 검출, 분유업체 대비

국내 분유업체들이 금속 이물질 검출에 이어 이번에는 유해균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오염실태를 발표한 후 검출된 제품(산양분유 1단계) 제조사인 남양유업에는 소비자들 항의가 빗발쳤다. 남양유업측은 대장균 검출 발표 뒤 문제가 된 산양분유 1단계 제품 6035통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며 판매량이 많지 않은 산양분유에서 검출됐지만 소비자들 모두가 모든 분유에 대해 불신을 보여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분유업체들도 단지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분유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물질이나 균을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등지로 직원을 보낸 업체도 있다.

과자·음료수 내년 12월부터 콜레스테롤 표시 의무화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2월부터 빵, 과자, 음료 등의 포장지에 당, 콜레스테롤 함유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진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을 8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는 과자류에는 캔디, 초콜릿 등이 포함된다. 레토르트 식품이란 전자레인지 등에 데워 먹을 수 있게 카레나 쌀 등을 멸균 상태로 밀봉한 음식을 말한다.

식약청은 또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수산화나

트륨, 염산, 황산, 표백분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반하면 품목제조정지를 할 방침이다.

중국산 검정깨, 색소 입혀 광택낸 후 비싼 가격으로 판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소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검정참깨 95점을 조사한 결과, 색소가 들어간 검정참깨가 16.8% (16점)나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색소는 청색 1호와 황색 4호 등 타르계 색소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 타르색소는 석탄 속 물질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일부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검정 참깨들이 대부분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깨로 둔갑시키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검정참깨에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검정 참

깨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산으로 나타났으나,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점상의 경우 75%, 재래시장의 경우 31%가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판매상의 설명으로만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원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 철저한 통관 검사를 해줄 것과 유통관리가 허술한 재래시장 등에 대한 감독과 단속 강화에 나서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청소년 칼슘 섭취 부족으로 건강에 '적신호'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55.4%에 불과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뼈와 연골, 치아조직 형성에 필요한데 성장기 칼슘부족은 성장장애나 구루병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부족할 경우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커지고 근육경련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칼슘은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대장암과 같은 성인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식생활습관 상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이 바로 칼슘이다. 특히 우유보다 청량음료를 즐겨 마시는 청소년들에게 칼슘섭취 부족은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 1~2잔의 우유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성인병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 3,500~4,000mg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 복부팽만감, 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 기능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

가을철 독버섯 중독사고 많아 주의 요망

우리나라 가을철 산림에는 다른 계절보다 가장 많은 식용 버섯들이 자생하지만, 맹독성 버섯도 함께 자생한다. 따라서 가을철 독버섯 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산림청은 11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버섯 중 10% 정도는 독버섯이라며, 야생버섯 식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맹독성 버섯은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알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노란다발 등으로 산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을 식용할 때는 채취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 버섯만 식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독버섯 중독 사고는 우리가 독버섯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버섯은 화려하고, 벌레가 먹지 않고, 소금물에 절이면 무독화 된다는 것 등인데, 이와 같은 상식이 모든 버섯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레의 노란색소, 전립선암 발생·전이 막는다

카레의 노란 천연색소로 이용되고 있는 커큐민이 전립선암 발생과 전이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최한

용 교수팀은 커큐민과 위약군으로 나눠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한 결과, 커큐민을 주입한 군의 전립선암 전이가 크게 낮았다고 최근 국제 학술지인 '전립선암과 전립선질환'지에 게재했다. 커큐민을 주입한 군의 경우 전립선암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전이 억제에도 효과가 있었다. 반면 위약군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아시아에서 전립선암이 낮은 이유는 콩, 녹차 등을 많이 먹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에 카레도 전립선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큐민은 인도 등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주로 카레와 겨자 등의 노란색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 성분은 이미 동남아에서는 수 천년 전부터 향신료와 염증, 피부질환 등 민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커큐민이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과 피부암 등에서 항암효과가 밝혀졌고, 항암효과 외에도 항염작용과 심혈관계에도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 제2차 현행법 남녀차별 조항 181개 발표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의 제18편(과학·기술)에서 제44편(외무)까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육아·산전후 휴가급여 과세 등 조세와 주택, 보건 관련 현행 법규에 성차별적 요소가 잔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월 발표한 현행 법령 1-17편의 남녀차별규정 발굴 조사 작업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성을 이유로 구별, 배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 차별 뿐 아니라 규정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간접 차별 법령, 남성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는 규정까지 포괄했다.

이번에 성차별적 규정으로 지적받은 조항은 총 181개(직접차별 158개, 간접차별 23개)다.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혼인 중 남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여성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추정, 여성배우자의 재산 취득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비롯해 성 고정 관념에 의한 차별 규정,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 등이 문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녀차별적 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7년까지 그동안 지적된 204개 차별규정의 80% 이상이 정비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번에 지적된 현행 법령상의 대표적 남녀 차별 조항이다.

◆ 조세 관련 법령 관련 차별 조항

-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중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 시 증여추정 조항 = 혼인 중 주로 남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여성 배우자에게 이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 여성 경제력에 불리하게 작용, 남녀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 소득세법 제50조 등 =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하면서 봉양대상 직계존속의 남성과 여성 연령을 각각 60세,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녀의 노동연한을 달리보고 있는 것은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직접차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세대주만을 입주자 선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의 경우 세대주가 남성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 성 고정관념에 의한 남녀 차별 조항

- 국민연금법 제63조 =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를 정하면서 아무 조건이 없는 처의 경우와 달리 남편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차별이다.

- 담배사업법 제25조 =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잡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을 그대로 투영한 차별규정이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하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달리 규정.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후유장애를 구별하면서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은 7급, 여성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9급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외모 손상이나 생식기 관련 장애를 달리 보는 것은 성차별적 조항이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정비 요망 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결혼한 딸'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한 딸을 '출가외인'이라 해 가족 범위에서 배제하는 가부장적 가족개념으로 호주제 폐지의 취지에 어긋난다.

공중화장실 여성용 변기, 남성용 1.5배 이상 의무화

행정자치부는 개정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10월 29일 이후 허가된 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용 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여성용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

널, 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 등이 교차하는 환승역의 공중화장실이다. 또 이들 시설의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대변기나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 소변기를 20~30cm의 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했다.

2006년 10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기준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여성 86% "여자의 적은 여자" 동참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등에 따르면 최근 여성 직장인 1,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5%가 '여자의 적은 여자'란 말에 공감한다'고 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내 여성들간 '동지적 관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여자의 적은 여자'이라는 낱을 받는 사례로는 '여자동료를 뒤에서 헐뜯을 때'가 37.3%로 가장 많았고, '동료라고 믿고 비밀을 말했는데 소문이 났을 때'(22.5%), '중요업무를 여사원을 못 믿어 남사원에게 시킬 때'(19.8%), '여팀장이 여사원들을 무시할 때'(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자 상사나 동료가 직장 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9.4%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지적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산티아고 데 까미노(야곱의 길)” 4천 5백리

스페인 북부의 어느 날은 4월임에도 눈보라가 쳤다.

새벽 추위를 막을 공여지책으로 양말 마구리를 잘라 나팔통을 만들어 팔에 뻗었다. 그날 낮 내내 천연스럽게 분홍 살구꽃이 나뭇거렸다. 우리의 첫 순례는 이렇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혼자 걸어볼 용기를 얻고 다음 해 실행에 옮겼다.

가을, 걷기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한참 전에 코엘료의 〈순례자〉도 나왔고 그보다 전에 어떤 여기자의 산티아고 여행기록이 퍼졌다. 책을 접한 즉시 산티아고 행을 감행한 이도 있겠지만 태생이 용의주도한 이는 아직도 배낭을 잠그지 못할 것이다. 낯선 나라를 한 달여 걷기로 작정하고 나면 우선 심신의 ‘배낭 잠그기’에서 갈등하기 마련, 오죽하면 ‘네 짐이 바로 네 인생’이란 말이 나왔을까.

나는 그런 갈등을 두 번 겪었다. 짐을 덜어내면서, 진작 이만큼 덜어내기에 지혜를 찢더라면 살기가 얼마나 수월했을까 묵상했다. 찻집한 생각에서부터 옷가지, 생활도구, 인과관계, 혈육 간의 정나미까지 보태기에만 열 올려놓고, 무겁다, 바쁘다, 자신을 북아쳤을 뿐 정작 중요한 일은 흘렸으리라는 후회이기도 했다.

산티아고 까미노(길, 걷기, 순례) 동안 나는 줄곧 배낭에다대고 ‘쫓고만 게 무겁기도 해라!’ 구박하다가 ‘세상에나! 요만큼의 짐이면 의식주가 해결되는데!’ 감탄을 번갈아 했다. 감탄은, 집에 돌아가면

모두 버리리라는 결심으로 이어졌지만 그 결심은 결국 ‘버릴 것 고르기만큼 어려운 게 없구나!’ 하는 또 한번의 감탄으로 끝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까미노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내년에 당장 떠나보라고 상대 안 가리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심사를 모르겠다. 왜냐고 물어오면 ‘그 길은 돌아오는 즉시 다시 걷고 싶어지는 길, 혼자 걸으면 더 좋은 길’이라는 얼버무림 끝에 구지레한 신상발언을 줄줄이 달았다. 나이 67, 좀 엉뚱하지만 겁이 많다, 스페인어는 깜깜, 식성도 건강도 보통, 스페인의 깡촌길은 혼자 걸어도 절대 안전,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주 순하게 웃더라고 중언부언하려면 구차스러워지긴 했다. 그래도 피어내고 싶은 이 앞에서는 기어이 한발 내딛고 만다. 가령 내 메모를 공개한다든지.

-거뭇한 숲길을 혼자 걸으며 작은 종소리를 듣는다. 가로 질러간 야생 노루를 마지막으로 줄곧 정적, 2천여 년 더께 진 바위가 수련댄다. 나는 홀연 그 중세의 언어를 터득한다. 언어혼란 이전의 태초의 뜰에서 발가벗고 뛰노는 나를 만나기도 한다. “안녕?” 지나치는 까미노의 인사에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난다. 하얀 햇살, 눈부신 풀꽃 사이에서 피죄죄한 까미노가 웃고 있다. 그도 나도 중세를 유명하다 들킨 셈일 터, 서로 부끄러울 것 없다. “안녕!” 나는 급히 그를 작별한다. 이어 꿈꾸려는 것, 그도 그럴 것이다.-

까미노에선 신부님을 따르는 학생들,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젊은이의 떼, 부부나 친구 모녀 형제의 짝들을 만난다. 그중에서, 홀로 걷는 것 이상 좋아 보인 건 온 가족이 나선 경우였다. 그들, 아홉 살, 일곱 살의 두 딸과 부모 누구도 큰 배낭을 메고 있지 않았다. 2천년 전 맨몸으로 복음 선포에 나선 야곱성인처럼 맨몸으로 걸어보자는 뜻을 세우고 떠났을 것이다.

그런 이들은 단숨에 콤포스텔라에 닿으려 무리하지 않는다. 올엔엔 여기까지만, 내년엔 저기까지, 계획이 느슨했다. 계획은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으니 맨발 치며 노래하며 걷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까미노 상이 아닐까. 먼 들 저쪽에서 혹은 등성이를 막 넘었을 때 아이들의 맑은 노래가 들려오면 나는 머리가 몽롱해질 지경이었다.

어떤 홀란드 젊은 부부는 작년에 열 살 먹은 아들과 6십일 만에 콤포스텔라에 닿았다고 했다.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들이 남 앞에서 여행담을 들려주며 기가 살더라는 말끝에, 내년에 한 번 더 동행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혼자 걸을 수 있을 거라며 신뢰에 찬 미소를 지었다. 보기 좋았다. 모름지기 부모의 자식을 향한 미소가 저만큼이었으면, 나는 수없이 고개를 끄덕여 줬다.

내가 만난 까미노들의 걷는 목적 이유 동기는 각기 판이할 것임에도 어딘가 닮아 있었다. 표정과

웃음이 비슷했다. 남을 배려하는 은밀함이 같았다. 결코 침침하지 않은 침묵의 빛깔이 같았다. 황혼녘, 생각에 잠겨 부동인 까미노의 뒷모습이 종종 가슴을 쳤다. 마침내 꼬깃꼬깃한 마음까지 훑었을까, 문득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다 잘못 했어요!”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 간절함은 실제로 ‘잘 살게요.’ 신통한 말이 되어 나오기도 했다.

아직도 ‘저 포도는 시어’쯤 산티아고 행을 밀어놓은 이에게 구체적으로 주책없어지겠다. 가장 돈 적게 드는 여행이고, 단 열흘 만에 체중이 10분의 1쯤 준다는 말부터. 문제는, 세상 온갖 것이 만만해 보이다가 마침내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겨야 하는지 그 분별조차 희미해지는 건데 그럼에도 마냥 태평하더라는 고백까지 하겠다. 내내 그런 마음이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순례자 무료 숙소의 침구를 세탁하거나 까미노의 발을 씻겨주는 노인 곁에서 머물대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나는 떠날 때와 같은 크기의 짐을 지고 돌아왔다. 마음 안팎 주변 정리를 계속 미뤄오는 지금, 황혼녘마다 왜 그리 간절했던지, 실행 못할 결심은 왜 또 그리 자주 했던지 잔뜩 부끄러워하는 참이다. 그럼에도 일단 떠나보라고 그곳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탈이다.

〈이난호/작가〉



1997년 〈어떤 늦바람 이야기〉로 ‘문예사조’ 신인상 당선 후 2001년 ‘계간 수필’ 지 가을호에 수필 〈저 강을 건널 때〉로 등단했다. 최근 〈글 쏟아질라〉가 한국비평문학회 ‘문예 수필’에, 수필지 〈에세이스트〉사의 ‘올해의 작품상 2005’에 등. 국민일보 에세이 연재와 수필집으로는 〈분홍 양말〉, 〈윤예선, 그 사람〉 등이 있다.



은행 수수료,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은행 거래에 수수료가 붙는 게 원칙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지불이 꽤 아깝다. 다음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은행 수수료 절약법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다.

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비용 필요

은행은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훈련함은 물론 컴퓨터 등 전산시설에 투자를 한다. 이러한 투자비용의 대가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면 고객에게 어떤 혜택이 오나요?

안전한 재산 보관 및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혜

고객은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기타 이익금을 이용하여 ATM 등 자동화기기의 증설은 물론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금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고객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대상 및 거래실적에 따라 면제에서 할인혜택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고객들이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많은 은행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일정한 기준에 부응하는 예금잔액을 유지하거나 은행이 정한 기타 기준을 충족한 우수고객들에 대해서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수수료 절감 방법은?

많은 고객들이 기본적인 수수료 절감방법을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수수료 절감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두자.

1. 주거래 은행을 만드세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수 고객을 선정하여 수수료 감면, 환율 우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거래 기여도 산정 기준으로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월급이나 공과금의 자동이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 실적, 대출 및 카드 등의 여신 사용액 등이 활용되고 있다.

2. 인터넷·텔레·모바일 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이용하세요

지점에서 은행직원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이용하면, 은행은 창구 직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욱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송금의 경우, 지점에서 은행직원을 통한 거래 수수료는 보통 1,000원~2,000원 이지만 ATM은 무료이거나 1,000원 정도이며 인터넷뱅킹 또한 무료이거나 500원~600원 수준이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수수료 절감 이외에 거래시간, 교통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인터넷뱅킹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고객은 지금 바로 거래은행에 문의하도록 하자.

3. ATM(무인기기)은 영업시간 내에 이용하세요

ATM 거래에 있어 또 하나의 수수료 절감방법은 바로 영업시간 중에 이용하는 것이다. 대다수 은행의 ATM 사용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 수수료가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거래하는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고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영업시간 중에 이용한다.

또한, ATM 이용 시 가능하면 계좌개설은행의 ATM을 사용하고 현금인출 시에는 소액을 여러 번 인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4. 거래은행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잘 파악해 두세요

각 은행별로 거래실적이 좋거나 급여·공과금 이체 등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은행들이 노약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창구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은행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래 전에 수수료 우대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5. 각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한 은행 내에서도 상품별로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 은행별로 수수료 수준을 꼭 확인해 보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를 방문하면 은행 수수료 종류 및 은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은행 간 수수료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골다공증, 예방이 최선이다

흔히 폐경기 여성에게 잘 찾아온다고 알려진 골다공증. 그러나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고 햇빛 노출 감소로 인해 비타민D가 부족해진 현대인에게서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골다공증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다. 다음은 골다공증의 원인과 그 예방법이다.

◆ 골다공증이란?

골다공증이란 뼈 안의 골량 감소로 인해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남아 있는 뼈에는 구조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과 기질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심하게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

우리 몸의 뼈는 흡수되고 생성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한다. 골다공증은 이런 골형성과 흡수 과정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골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생성 속도가 느려져 골생성량이 골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뼈가 점점 엉성해지고 얇아져서 부러지기 쉽게 된다.

30대 후반부터 나이가 들수록 뼈의 생성 속도보다는 흡수속도가 빨라져 골량이 점차 감소하여 결국 뼈는 점점 약해지게 된다. 특히 폐경

기의 여성은 뼈의 흡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많은 골량의 손실되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속한 감소 때문이다.

◆ 골다공증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다공증의 위험 가운데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필요하다.

- **노령** : 노화에 따른 골량 감소 및 칼슘 흡수 감소한다.
-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이 더 크다** : 여성은 원래의 뼈 중량이 남성보다 더 적고, 폐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뼈 중량의 감소가 가속화된다.
- **동양인 또는 백인** (특히, 북유럽과 코카시안 여성)이 흑인보다 걸리기 쉽다.
- **운동부족** : 활동이 적을수록 잘 걸리며,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골

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 **저체중** : 신장에 비하여 체중이 가볍고 체격이 왜소한 사람에게 더 위험하다.
- **칼슘 섭취 부족** : 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기피하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
- **폐경** : 폐경이 되면 뼈의 손실을 막아주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성이 멈추기 때문이다.
- **흡연, 알코올, 카페인 함유음료** (커피 등)의 과잉 섭취
-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 등 장기 복용 경우

◆ 골다공증의 증상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점차로 등이나 허리에 둔한 동통 및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뼈가 더욱 약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척추골, 대퇴골(허벅지뼈), 요골(손목뼈) 등에 골절이 잘 일어나는데, 대퇴골 근위부 골절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중 가장 위험한 골절로서 약 15~20%는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환자의 약 50%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으로 여생 동안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의 통증이 오고 척추의 변형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도 작아지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30대 이전에 최대 골량에 도달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자.

① 젊은 시절부터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자

칼슘의 경우 성인 1일 800~1000mg, 성장기 청소년과 폐경기 여성, 노인에서는 1500mg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우유의 칼슘은 흡수가 좋고 2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우유를 먹으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탈유당분유가 적당하다. 그 외 치즈, 요구르트, 달걀, 굴, 조개 및 두부 등에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② 적당한 일광욕으로 피부에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하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중요하다. 특히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햇빛을 적당히 쬌어서 비타민 결핍을 예방한다.

③ 체중을 싣는 적절한 운동을 하자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은 체중부하 운동이다. 수영과 같은 운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산책·조깅·등산 등을 일주일에 3회 이상 20분 정도 꾸준히 해 줄 것을 권장한다. 이런 운동은 뼈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폐 기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④ 흡연과 과도한 음주 및 카페인 음료를 삼가자

흡연은 물론이고 술과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내용참조: 서울대학병원의 의학정보, 건강길라잡이>

집안을 '목재 향기'로 채우자

-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는 목재이야기-

주택에서 목재 사용이 많을수록 폐암, 식도암, 유방암, 간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일본에서 발표되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목재의 생활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아보고 목재로 된 가구 및 제품으로 실내를 바꿔보자.

■ 목재향기는 진정효과가 있다

목재가구나 목제품이 많은 실내에서나 서까래와 보가 노출된 한옥에 있어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목재의 독특한 향기 때문이다.

목재는 독특한 향기를 소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건축소재 가운데서 목재가 선택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목재의 향기는 몇 십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혼합물이다.

사람이 목재향기를 흡입하면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난다. 목재향기는 인간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삼나무, 편백, 소나무, 노송나무, 미송(다글라스퍼), 미국삼나무 등의 향기는 모두 기분을 안정되게 하는 진

정효과(鎮靜效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삼림욕이 각광 받고, 주변 환경을 목재로 바꾸는 것은 무미건조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재향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목재는 숲중이 나지 않는다

사람의 심장박동은 같은 주기의 심장박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약 10%의 범위에서 자연변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는 자연 진동과 같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 변동은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1/f형을 나타내고 있다.

목재의 연륜 간격은 장기간의 지구 기후 변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목재를 구성하는 세포도 모두 다른 크기의 것이 모여서 하

나의 목재를 구성한다. 목재의 조직도 1/f형을 나타내므로 목재를 보면 항상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거환경에도 가구나 책상 등을 보면 소재가 목재가 아니면서도 목재무늬를 입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목재무늬가 신체의 자유로운 리듬의 변동과 같은 형태로 시각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거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두가 1/f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해충은 목재를 기피한다

실내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위생해충이 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먼지 진드기류이다. 진드기는 천식이나 아토피(atopy)를 야기하는 강한 알레르겐(allergen)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성분 중에는 이들 진드기, 바퀴벌레, 흰개미 등에 대하여 강한 기피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함을 제공한다. 콘크리트 아파트와 같이 주택 내부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집먼지 진드기류의 발생이 많다.

콘크리트는 목재와 같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배출하는 조습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일단 양생되고 나면 수분을 흡습하는 능력이 극도로 저하된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발생된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체류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로 또는 체류 수분

이 먼지가 결합하기 때문에 먼지가 의류, 이불, 가구 등에 쌓이고, 집먼지 진드기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기가 불량한 곳에서는 공기 중에 이들의 분뇨가 미세먼지와 함께 날아다니므로 호흡기질환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다. 또 집안에서 가려움의 고통을 호소함은 진드기류의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목재는 건강을 지켜준다

목재향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침엽수로 구성된 여러 가지 수종의 대패밥에서 쥐를 사육하였다.

그리고 5일 후에 쥐의 간에 함유되어 있는 치토크롬 P-450(일상생활에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해독하고, 체내에서 스테로이드대사 등을 담당하는 효소)이란 약물대사 효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미국삼나무에서 치토크롬이 62% 정도 증가하는 등 약물대사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목재에서 정유를 추출하여 쥐의 복강에 투여한 결과 미국삼나무가 60%, 편백의 경우는 24% 치토크롬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목질재료 중에는 약물의 해독을 촉진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쥐의 간에서 추출한 치토크롬 중에는 20종의 분자종이 분리 정제되었고, 발암의 억제에 관여하는 효소가 12배 증가함이 밝혀졌다.

〈산림청에서 내용 발췌〉

한가위 명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자주 찾아볼지 못했던 웃어른들과 소원하게 지냈던 이웃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이때 멋스러우면서도 전통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다과를 정성껏 만들어 내어 놓으면
웃어른의 사랑도 듬뿍 받고, 이웃과의 적도 깊어질 것이다.

[illegible]

〈만드는 방법〉

- ① 밀가루를 체에 곱게 친후 물, 소금,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다.
- ②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길이 4~5 cm, 너비 2cm 정도로 잘라 세로 방향으로 내천(川)자 형태의 칼집을 낸 뒤 가운데 칼집 사이를 벌려서 양쪽 귀를 집어넣었다가 당기면 파배기 형태의 매작과 모양이 만들어진다.
- ③ 튀김기를 섭씨 130~140도 정도에서 튀

겨내어 꿀을 묻혀 잣가루와 계피가루를 살살 뿌린다.

- ④ 상수리 잎을 깨끗이 닦아 접시 위에 깔고 그 위에 매작과를 담는다.

포도과떡

재료> 포도 800g, 물 8컵, 옥수수 녹말 1컵, 설탕 1과
1/2컵, 소금 1/4작은술, 꿀 1작은술, 생밤 3개

〈만드는 방법〉

- ① 포도는 한 알씩 떼어 깨끗이 씻은 후 물 8컵을 넣어 푹 끓인 다음
고운 체에 받혀서 6컵
정도의 과즙을 받아
놓는다.
- ② ①의 포도즙이
- 
-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white plate with several pieces of grape jelly. The jelly is in various shapes: some are round with a white filling in the center, and others are shaped like grape leaves or clusters. A small bunch of grapes with leaves is also on the plate.



식으면 한 국자 정도 떠서 옥수수 녹말 1컵을 넣어 멍울 없게 골고루 푼다.

- ③ 나머지 포도즙에 설탕, 꿀, 소금을 넣어 조리다가 ②의 녹말 푼 포도즙을 부어 은근한 불에서 30~40분 정도 조리다. 이때 거품은 걷어 내면서 젤리 상태로 조리되면 불을 끈다.
- ④ 사각 그릇에 ③을 붓고 냉장고에서 차게 굳힌다. 완전히 굳으면 꽃모양 틀이나 은행잎틀로 찍어내고 그 위에 생밤을 얇게 썰어 포도과편 위에 장식한다.
- ⑤ 편편한 접시에 꽃 모양 포도과편을 가지런히 놓는다.

배속

재료> 배 1개, 생강 40g, 물 8컵, 통후추 1작은술, 설탕 1과1/2컵, 잣 1큰술



〈만드는 방법〉

- ① 생강은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민 후 물 8컵을 붓고 중불에서 끓인 뒤 체에 받쳐 생강을 걸러낸다.
- ② 배는 껍질을 벗겨 2 cm 두께로 썰고 크고 작은 꽃 모양 틀로 찍어서 통후추를 중심에 한 개씩 박는다.
- ③ ②의 배에 ①의 생강물 1/4컵을 넣고 10 분 정도 끓인다.
- ④ 받쳐놓은 생강물에 설탕과 ③을 함께 넣

고 끓여낸 다음 차게 식힌다.

- ⑤ 청자 화채 컵에 배숙을 담고 그 위에 잣을 띄운다.

국화절

재료> 찹쌀가루 4컵, 소금 1작은술, 식용유 약간, 황
국유 약간, 꿀 1/2컵

〈만드는 방법〉

- ① 깨끗이 씻은 참쌀을 불린 다음 소금을 넣어 가루로 곱게 뺏아 고운체에 내린다.
- ② 참쌀가루는 익반죽하여 고루 치낸 다음 직경 5cm 정도의 크기로 둥글납작하게 빚어 놓는다.
- ③ 국화꽃은 잎을 하나하나 떼어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뺀다.
- ④ 프라이팬을 달구어 기름을 약간 두르고 ②의 반죽을 서로 붙지 않게 떼어 놓은 다음 손가락으로 눌러 가며 지진다.
- ⑤ 맑은 색이 날 때까지 지진 후 뒤집어 국화꽃잎으로 무늬를 넣은 다음 익힌 후, 꺼내어 꿀을 고루 묻혀 그릇에 담아낸다. 초간장을 곁들여 상에 내어 놓아도 좋다.

※ 국화 꽃잎을 위에 붙이지 않고 꽃잎을 찹쌀가루 반죽할 때 섞기도 한다. 이때는 찹쌀반죽을 무르게 해야 꽃잎이 잘 섞인다.



전자제품, 알뜰 구입 노하우

홈쇼핑과 인터넷에서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입하자니 못미덥고,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자니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같은 물건의 판매가격이 달라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전자제품 가장 싸게 구입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가전제품, 판매 장소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비해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서 진열된 동일제품의 판매 가격이 싼 편이다. 이는 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들여와 값싸게 파는 박리다매 방식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전자 전문점 등 매장별로 별도로 공급되는 '전용모델' 까지 있어 온라인상으로 구매할 때 소비자는 제품의 모델명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동일한 가전제품,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①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확인하자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직접 모델명을 확인 후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자신이 구입하고자하는 모델의 가격대를 비교한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쇼핑몰 가격부터 대형 전자상가의 각 매장이 제시하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띄우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이라고 10% 안팎으로 가격 차이가 난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로는 '다나와' (www.danawa.com), '에누리' (www.enuri.com) 가 대표적이며 '옥션', '마이마진', 'G마켓' 등이 있다.

② 가격 비교 후 대형 전자상가에서 구입하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확인했다면 소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형 전자상가로 간다. 대형 전자상가의 대다수 매장 역시 가격비교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접속해 가격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원하는 모델을 찾은 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확인하고 왔다'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판매상인 역시 최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지 못한다. 대형 전자상가의 경우, 들어오는 제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하고 박리다매 형식의 판매 구조 때문에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

③ 먼저 구입가를 제시하지 말자

판매상인 역시 최저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먼저 원하는 구입가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 순간 가격 흥정의 주도권이 상인에게 넘어가고 만다.

특히 대형 전자상가의 매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왔느냐'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원하는 구입가를 물어본다. 이 때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본 최저가를 말해버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상인은 소비자가 제시한 가격 그래도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흥정시 소비자는 먼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현금 거래를 하면 카드 수수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가을 향기 가득한 곳으로!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연휴와 함께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따라 떠나는 여행길, 깊어가는 가을 향기를 담아오자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연휴와 함께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따라 떠나는 여행길, 깊어가는 가을 향기를 담아오자.

전북 곡성의 코스모스



가을 꽃구경도 봄꽃 구경 못지 않게 색다른 매력이 있다. 특히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은 마음을 뺏겨버릴 만큼 황홀하다. 곡성에는 사람이 폭 빠져들 만큼의 굵직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코스모스밭을 지천에서 볼 수 있다. 기다란 줄기 끝에 얇은 8장의 꽃잎과 노란 꽃자루를 달고 있는 코스모스는 흰색, 자주색, 연분홍색 등 그 색깔도 가지가지. 곡성 석곡리의 보성강변에 조성된 코스모스 단지는 봄부터 코스모스 씨를 수십 가마 싣 뿌리고 거름을 주어 가꾸어낸 코스모스밭이다. 보이는 것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뿐, 강둑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는 가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기에 충분할 터. 곡성읍 장선리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도 강둑 양쪽에 가꾼 코스모스 꽃길이 2km가량 펼쳐져 있고 갈대와 메밀꽃도 연분홍으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강원 양양 오색주전골의 단풍



남설악을 대표하는 단풍코스인 오색주전골이다. 옛날 외지고 골이 깊은 이곳에서 위폐를 만들었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주전골은 얼마 전 수해로 많은 피해가 났던 곳이긴 해도, 또 다시 자연의 힘으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주전골 오색은 천 입구부터 용소폭포, 12폭포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12폭포까지의 계

곡이 주전골이다. 보통 10월 초순 물들기 시작 해 중순 무렵 주전골은 절정을 이루는데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평탄한 코스가 좋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계곡의 단풍과 그 사이로 흐르는 옥빛 물줄기가 그야말로 절경. 주위에 선녀탕, 독주암, 12폭포와 용소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제 2오색약수터가 있어 산행의 갈증을 씻어주며 산길은 평탄하여 왕복 3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코스다.

충남 홍성 남당리포구의 대하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하다. 서해안을 따라 고향가는 길에는 대하 굽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당포구를 둘러보자. 봄에는 주꾸미, 여름엔 활어,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가 나오는 남당포구. 이중 가을 대하가 가장 유명해서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다. 우리나라 새우의 30%를 잡아 올리는 대하의 천국인 남당리 포구는 그 크기도 아주 크다. 특히 10월 대하는 평균 길이가 20cm, 큰 것은 27cm나 돼 보기만 해도 탐스럽다. 일년 중 새우가 가장 맛있는 때가 바로 지금. 옆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소금 위에서 노릿하게 구워 붉게 익힌 대하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함이 온 몸으로 전해진다. 시척말로 돌이 먹다 하나죽어도 모를 정도. 남당 포구는 새우 외에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꽃게이다. 서해안 꽃게는 원래 옛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유명하다. 시원스럽게 뚫린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경기도 서해안을 거쳐 광천 인터체인지를 만나면 바로 빠져나가면 된다.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본회가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 지역사회 문제 예방 치료 및 지역사회와 주민의 연대감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 전라남도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실태 결과, 후원금 관리본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의 글은 신애란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장(순천주부교실지회장)의 수상 소감이다.

힘차게 울어대던 매미소리, 격렬했던 태양, 뜨거운 대지의 숨결이 가득했던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이고 노력과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 줄 풍요로운 가을이 선뜻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는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눌 오곡백과가 풍성함이고, 아름다운 색채로 수놓아지는 산과 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자리하고 있는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법인 아래 순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1994년 9월 개관하여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실현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제는 한 지역의

대표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탄탄하게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을 마음 깊이 안겨 주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과를 비롯해 장애인, 학부모 가정, 노인, 소년·소녀가정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

든 노인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노인을 낮 동안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복지관은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매 분기별로 경로위안잔치와 더불어 노인사랑열린마당축제를 열어 드리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바깥나들이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 손을 잡고 산의 정상을 등반함으로써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 의지를 고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운 동절기에 몸과 마음이 추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며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함께 즐기며 어울릴 수 있는 야외나들이 기회를 마련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전라남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전남지역에 있는 15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운영현황, 후원금 집행내역, 주요복지사업 추진상황, 대상자 만족도여부를 따른 다양한 점검 항목을 두고 각 기관을 평가한 결과, 본 복지관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높은 후원금 실적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우수한 복지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수복지기관 선정에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본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3백만 원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만 원 상당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윤자 회장님 이하 전국주부교실 회원님들의 열렬한 애정과 성원이 계셨기에 가능하였고 아울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역자원봉사자,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지경사회 그늘진 곳에 환한 등불을 비춰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와 사랑, 작은 봉사 때문에 누군가 기뻐한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복지관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저를 비롯한 14명의 직원들은 복지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지역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님들과 함께 나눔과 배움의 정신으로 인정이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윤자 회장님 이하 전국주부교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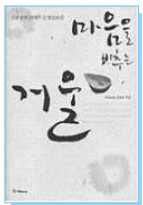
봉지 ... 김인숙 著 / 문학사상사



봉지는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그녀는 시골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불량학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과 어울렸고, 3류 대학생이었고, 혼돈과 시위의 시대에 청춘을 보내야 했던 인물이다. 다시 말해 80년대라는 시대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들의 일그러진 청춘의 대명사같은 인물이다. 그의 주위에 있는 인물들도 모두 봉지의 변주들이라 할 수 있다. 시골 캄패인 오빠, 철없는 엄마인 영주, 허영이 많은 선미, 무뚝뚝한 가현 등이 모두 못난 젊음이란 점에서 비슷한 캐릭터들이다. 이들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지난 세월을 한기시켜준다. 특히 그 당시를 젊은 시절로 보냈던 독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대를 모르는 독자들에게도 이 소설은, 젊음이라는 것이 지닌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혼란과 자학, 그리고 미망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다. 다만, 좌표 없는 청춘의 불안정한 삶의 세목에 치중하는 대신 그 혼란의 시대적, 존재론적 원인에 대한 깊은 천착이 약하다는 점에서 아쉽다. 80년대와 90년대에 이런 스타일의 소설들이 많았다. 『봉지』는 그런 소설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깊어진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바탕색을 새로 칠한 것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마음을 비추는 거울 ... 신봉승 著 / 국일미디어



재주는 있는데 덕이 박(薄)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다. 이 시대는 왜 재승박덕(才勝薄德)형의 인간을 길러내는가? 혹시 어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일반적으로 덕은 어른을 섬겨 보는 데서 생긴다. 지혜로운 어른이 있어야 안정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보살피는 힘을 키운다. 재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왕좌왕, 안정감이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어른 신봉승 선생이 어른다운

책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냈다. 그는 묻는다. 이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은 대체로 고학력 지식인인데 왜 우리의 문화 환경은 이토록 천박하고 보잘 것 없느냐고. 그는 재물을 모든 가치의 우위에 두고 개인의 이득에만 몰두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의 씨앗을 키우는 거라고 한다. 자식들에게 아파트까지 마련해주는 부모는 독립심을 꺾는 거라고 하는 그는 어머니에게도 책상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어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각각 개인으로 밀폐된 이기적인 시대에 더불어 사는 지혜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움은 에너지고 길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다 보면 새로운 문화 환경이 열리지 않겠는가.

〈추천위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아름다움을 보는 눈 ... 홍사중 著 / 아트북스



한국인의 전통미학을 '구수한 큰 맛'이라고 갈파한 일제시기 고유섭의 연구 이래 우리 미의식의 독자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20년 만에 재출간된 홍사중의 이번 저서 역시 종래의 관점들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가령 미완의 미, 국밥과 같은 적당함의 금도, 실용성이라는 출발점 등. 저자의 시선은 불상, 동양화, 정원, 문양, 고목기, 도예, 꽃병, 문학 작품 등을 꼼꼼히 추적해 우리 정서와 생활방식에 배어 있는 미의식의 원형질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의 흥미는 저자의 비교 문화적 식견에서 온다. 통상 일본, 중국과의 차별성을 찾아내는 것이 유사 연구의 공통점이지만 저자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서양을 향해 열려 있다. 우리와 서양인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논점을 전개해 나가는 예가 많은 것이다. '백자 같고 무명 저고리 같은 한국의 미'라는 저자의 진단이 과연 결여와 결핍에 대한 작위적 가치부여인지 여부가 선명치 않은 대목도 많다. 하지만 저자가 시도한 한국미의 특질 규명이 우리에게 부족한 자기 객관화 작업에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추천위원 : 김갑수(문화평론가)〉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 · 도 지부 234개 시 · 군 · 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가족과 함께 하는 소비자 캠프

시지부

8월 11일 구덕 청소년 수련관에서 회원과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경제 관련 놀이를 통해 미래사회 경제주체가 될 어린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었다.



양성평등 가족캠프

시지부

최근 핵가족화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 복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가족 형태 변화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문화만이 행복

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 및 그 실천을 위해 8월 11일~12일 1박 2일간 회원 가족 80명이 구덕 청소년 수련관에 모여 「양성평등 가족 캠프」를 가졌다.



대구광역시지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방문 및 직거래

시지부

8월 13일 회원 47명이 경주에 위치



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인 메뚜기 마을을 방문해 친환경 재배 과정을 직접 보며 친환경 농산물 신뢰 및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 발대식

시지부

지난 8월 22일 회원 40명이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신종·변종업소의 음성적 성매매와 알선 행위를 감시하는 여성가족부 지원 성매매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9월까지 1차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바자회개최

시지부

8월 25일~29일까지 5일간 롯데백화점에서 '사랑으로 희망을...'이란 주제로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봉사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제3회 인천사랑 우리가 지켜요'

시지부

8월 10일 시화호 습지공원과 시화호 전만대, 남동정수장에서 환경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초등학생과 부모님 85명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견학과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했다.



엄마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프

시지부

8월 14일~15일(1박2일) 강화 계명원에서 모자가정의 엄마와 자녀 49명이 '엄마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프'에 참여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성교



육',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건전한 성문화 유도와 함께 한 부모 가정이라는 결손 가정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활동

연수구지회, 남동구지회, 계양구지회, 서구지회, 강화군지회

연수구지회는 8월 21일 을지훈련으로 애쓰는 공무원에게 떡 한 말과 박카스를 전달했고, 수재민 돕기로 생필품을 마련해 강원도 평창군청에 전했다.

남동구지회는 8월 11일 회원 10여명이 남동구 자립장을 방문해 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과 함께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계양구지회는 8월 3일, 서구지회는 8월 14일 회원 10여명이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 중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구지회는 8월 14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과 함께 쓸쓸한 말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강화군지회는 8월 22일 회원12명이 을지훈련으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국수와 떡을 마련해 대접하는 야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어린이 비만을 위한 식생활 개선 교육

시지부

8월 10일 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주부 150여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인스턴트 음식의 문제점을 비롯한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부족 등이 어린이 비만의 주원인만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주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 및 전시회

시지부

8월 11일 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130명을 대상으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고, 24일에는 회원 31명이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전시회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촌체험학습

시지부

8월 30일 전남 곡성 하늘나라마을에서 회원 및 유치원생 45명이 함께 농촌체험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평상시 경험하지 못했던 농촌의 일상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지부

엄마와 함께 하는 농촌체험학습

시지부

8월 9일 유치원생 및 어머니 45명

과 함께 이천 부래미 마을을 찾아가다. 오이 농장 견학과 미꾸라지 잡기, 인절미 만들기 등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농산물 생산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농촌문화 이해 및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 현장 견학

시지부

8월 11일 초등학생 45명과 함께 논산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를 방문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애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어린이 쌀 사랑 현장체험

시지부

8월 18일 회원 및 자녀 45명이 경기도 이천의 자채방아 마을을 방문해 농촌체험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쌀의 생산 과정을 비롯해 쌀 도정 과정, 좋은 쌀 고르는 방법, 농기구 변천모습 등을 설명하고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쌀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지부

대암댐 정화활동

시지부

8월 10일 운영위원과 그린여성자전거교실 회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울산단 직원 45명이 함께 대암댐 정화

활동을 전개해 청결한 주변 환경조성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가꾸기에 앞장섰다.



생태보전지역 탐방

시지부

8월 18일 회원 및 자녀 45명이 생태계 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을 탐방하여 서식생물조사 및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청소년환경탐사대 하계캠프 실시

시지부

8월 18일~19일 서생초등학교에서 환경탐사대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환경탐사대 하

계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공작교실, 다도 예절교실, 서바이벌 게임,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생활하게 함으로써 환경 애호 정신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봉사활동 및 건강교실 운영

시지부

8월 23일 회원 10명이 늘푸른 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제공, 주변청소 및 함께 산책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문화교실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노인들을 위해 무료 한글,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건강을 위해 실버 웰빙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지부

정기회의 및 자문위원단 구성

도지부

8월 30일 경기도여성회관 나혜석홀에서 시·군지회장 회의를 열었다. 새롭게 구성된 도지부 자문위원단의 임명식을 갖고 3/4분기 사업보고 및 지회 활성화를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

성남시지회, 부천시지회

성남시지회는 8월 15일부터 5일간 성남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탄천 페스티벌' 문화행사에 회원 15명이 교대로 참가해 식사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부천시지회는 8월 25일 회원 10여명이 1박 2일로 인천 장봉도에 위치한 정신지체재활원 '해림원'을 방문해 식사 대접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

시했다.



강원도지부

자전거 실천 캠페인

도지부

8월 12일 회원 15명이 공지천과 명동 일대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유가 극복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웃음 행복학' 및 여성학 강의

강릉시지회, 동해시지회

강릉시지회는 8월 12일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웃음치료 전문가를 초빙해 웃음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드는 '웃음 행복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행복해야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인하여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알았다.

동해시지회는 8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90명을 대상으로 김진열 동해시장과 한상복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지방의회 여성참여 방안 및 부간의 성(性)'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봉사활동

태백시지회

8월 17일 회원 12명이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목욕 및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지부

이마트 신선식품 품평회

충주시지회

8월 11일 이마트 충주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에 30명의 회원이 '신선식품 품평회'에 참여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 정보 제공에 힘썼다.



환경정화운동

충주시지회

8월 25일 회원 30여명이 충주 호암공원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쓰레기 줍기와 주변 정리를 통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환경지킴이' 역할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했다.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

충주시지회

8월 31일 충주롯데마트 터미널 앞

에서 충주시 지역경제주관 충주지역 소비자단체합동으로 '1일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피해상담 및 민원접수처리 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지부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도지부

지난 8월 1일 공주네거리에서 회원 및 축산물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우리 축산물과 관련해 캠페인을 실시했



다. 이날 캠페인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축산농가가 힘써줄 것을 요구했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 확인으로 안전한 축산물 섭취와 더불어 우리 축산물 애용으로 축산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봉사활동

예산군지회

8월 21일 회원 20명이 장애우시설인 곰두리 봉사대를 방문해 정성껏 장만해 간 삼계탕과 과일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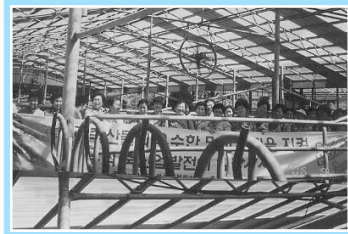
전라북도지부

우리축산물 농가 및 가공장 견학

도지부

지난 8월 1일 회원 45명이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에 위치한 목우촌과 죽산면 옥성리에 위치한 동천목장을 방문해 축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축산물소비촉진 전시회 및 가두 캠페인

도지부

8월 4일 회원 20여명이 대한투자신탁 앞 광장에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를 열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기의 품질 및 신선도 알기, 등급 활용한 고기 선택법 등의 정보 제공과 가두 캠페인을 통한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홍보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김제시지회, 고창군지회, 완주군지회

김제시지회는 8월 24일 회원 6명이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군지회는 8월 8일과 22일 회원 6명이 고창읍에 위치한 효도의 집을 방문해 몸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들을 위해 목욕봉사와 함께 식사대접으로 쓸쓸한 노년을 위로해 드렸다.

완주군지회는 8월 9일, 11일, 20일 회원 10명이 완주군 평촌리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옥수수와 고추 따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남도지부

축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도지부

8월 28일 회원 40명이 제일초등학교 입구에서 부영아파트 입구까지

'건강 밥상 우리 축산물 딱입니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회

도지부

8월 28일 오전 화순군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회원 40명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판넬 전시회를 실시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살맛나는 은빛 세상 만들기'

나주시지회

8월 25일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살맛나는 은빛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노인 100분을 모시고 다도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

강진군지회

8월 14일~27일까지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2가정을 방문해 산모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4일에는 회원 30명이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공부하는 성요셉 여학교를 방문해 무료 식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8일 강진국민체육센터 축구경기장에 회원 30명이 군에서 개최한 국제축구대회에 참여해 무료 음료 제공 및 경기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연보호 활동

영암군지회

8월 21일 회원 30명이 강진 경포대에서 회원 간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갖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부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캠페인

도지부

지난 8월 2일 회원 및 인근 중·고등학교 청소년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백화점에서 상공회의소를 거쳐 본 지부까지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경주시지회, 포항시지회, 영천시

지회, 문경시지회, 안동시지회, 봉화군지회, 성주군지회

경주시지회는 8월 7일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지역 주민 26가구를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고, 17일~18일 안강읍 주최로 열린 축구대회에 회원 전원이 참여해 급수 및 안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는 매주 월요일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 4가정을 방문해 반찬배달 차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월 21일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을지훈련 현장을 방문해 간식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천시지회는 8월 22일 회원 전원이 을지훈련으로 수고하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했다.

문경시지회는 8월 9일 문경읍내 냇가 주변을, 영주시지회는 8월 19일 서천폭포 주변에서 행락철을 맞아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해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안동시지회는 8월 1일~4일까지 보건소 주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계도 활동시 회원 전원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화군지회는 8월 2일~6일까지 내성천에서 열린 은어축제에 회원 30

명이 참여해 음식을 팔아 수익금 전액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14일과 18일 서벽 1리에 살고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분을 위한 이동목욕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성주군지회는 8월 10일 성주군 가천내에서 행락철을 맞아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16일에는 용암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준비해 대접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참여

상주시지회

8월 22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시직원들과 회원 전원이 참여해 재래시장을 찾아가 직접 장을 보면서 상가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경상남도지부

특수 민요반 개설 운영

도지부

8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회원 6명을 대상으로 우리 노래 보급을 위한 '특수 민요반'을 개설해 전통문화 보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환경정화운동

밀양시지회

8월 한 달 동안 회원 70명이 7명씩 10개조로 나눠 얼음골 축제, 동의제 축제 등으로 밀양시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을 위해 매일 공중화장실 16개를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창녕군지회

8월 22일 창녕군 복지회관에서 회원 12명이 창녕군민을 위해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기로 한 원광대학교 의료봉사단을 위한 식사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제주도지부

장바구니 물가조사

도지부

제주도청의 위탁을 받아 지속적인

로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10명이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위치한 대형매장 10개 업소와 재래시장 2곳의 55개 기초생활품 가격 조사를 실시해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

도지부

8월 6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도내 거주하는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인 문제점을 널리 인식시키고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음식문화 정착 유도 및 음식물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교육을 전개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 유통 방지 캠페인

도지부

8월 10일 복제주군 세화민속오일 시장에서 회원 20명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농산물 보호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참가

도지부

8월 22일 제주시 중앙로 현대약국 일대에서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구매 및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에 회원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제주경제살리기에 도민 모두가 동참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동문재래시장 상가번영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했다.



● 주부교실게시판 ●

‘제13회 주부대학동문회 운동회’ 개최

본회에서는 주부대학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운동회를 개최하오니 주부대학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10:30
- 장 소 : 과천 경마공원(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하차)
- 참가비 : 1만 5천원

제9기 주부대학원 수강생 모집

주부대학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주부대학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부대학 수료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상 : 주부대학 수료생
- 개 강 일 : 2006년 11월 9일(목) 10:30
- 교육기간 : 1년 (주1회 수업: 목요일)
- 모집기간 : 2006년 10월 말까지
- 접수 및 문의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
(02-2265-0637, 3627, 3628)

건강교실 수강생 모집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주부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댄스 및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 의 : (02) 2265-0637, 2265-3627~8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화·인터넷·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